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 공연예술인과 바꿔야 할 문화 및 지원

차민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문화예술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본 브리핑은 무용, 음악, 무대기술 등의 공연예술인들의 겪고 있는 업무 상의 질병을 살펴보고, 질병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흔히 공연업계에서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The show must go on)”라는 말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준비한 쇼는 완성을 시키겠다는 공연계 종사자들의 의지이자, 공연에 대한 그들의 열정, 그리고 프로의식을 엿볼 수 있는 말이다. 공연계에서는 이 말이 업계 종사자라면 마음에 새겨야 할 어구로 생각하며, 무대를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당연시되고 있는 단서인 ‘어떠한 일이 있어도’라는 말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인지,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최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다양한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공연예술인

공연예술인을 흔히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한다. 업무적 특성으로 인해 누적된 질병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공연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다. 신체 부위별로는 목·어깨의 통증저림·골절이 가장 많으며, 등·허리, 그리고 팔·손목 등에도 각종 통증저림·골절을 겪고 있었다. 가장 많은 질환을 겪는 것은 역시 신체 사용이 가장 많은 ‘무용’ 분야이다. 이들은 주로 다리, 무릎, 발목, 발, 골반 등 하지와 관련한 질환이 많았지만 상지에도 상해를 입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무용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음악’ 분야의 경우 목과 어깨, 등과 허리, 팔과 손목 등 주로 상지에 각종 질환을 겪고 있었다. ‘국악’의 경우 양반다리로 오랜 기간 앉아서 연습 및 공연을 하면서 골반 등 하지에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연극 및 뮤지컬’ 분야는 목과 어깨, 등과 허리, 무릎, 팔과 손목 등 다양한 곳에 각종 질환을 겪고 있었다.

실연 분야뿐만 아니라 무대기술 분야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도 매우 심각하다. 무거운 무대 설비의 이동 및 설치 과정에서 신체에 무리를 가하는 경우가 많은 이들은 작업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자세를 장시간 취하면서 신체에 과도한 긴장과 무리가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을 겪게 된다. 목, 팔·손목, 등·허리 등 상지 질환이 가장 많으며 무릎이나 다리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었다. ‘기획, 제작, 행정’ 분야 종사자의 경우 실연자나 무대기술 스태프와 같이 격렬한 동작이나 비정상적인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은 드문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목과 어깨의 통증, 결림, 골절 경험과 정신질환의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공연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업무상 질병은 다양하다. 음악이나 국악 등의 분야 공연 예술인들은 ‘청력 손실’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유해한 소음 노출이 하루 8시간 근무 시 평균 85dB(A) 이상이 되면 소음노출을 시작한다고 보고 있는데, 라이브 콘서트 및 연습 세션 동안 측정된 사운드 레벨은 안전 한계를 매우 초과하고 있다. 생계를 청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음악가에게 청각 기능의 문제는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인식이나 예방 조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무용 예술인의 경우 ‘영양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외형적 체형을 중요시하는 장르 특성상 깡마른 몸매를 만들기 위한 혹독한 식이요법을 진행하게 되고, 여기에 뛰어난 수행능력을 위한 훈련을 병행하면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건강 이상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운동 수행 능력을 떨어뜨려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수이다. 그 외에도 공연예술인은 예술 장르나, 직무 유형에 따라 다양한 질병을 겪는데, 성악가나 배우, 무대감독들은 성대결절을 다수 경험하고 있었다.

■ 업무 자체의 특징과 문화적·환경적 부적절성의 문제

공연예술인들의 겪는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원인은 대부분 공연예술이라는 업무 자체가 가진 특성으로 인한 것이 많았다. 무용의 경우 비정상적인 동작을 반복하거나 무거운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음악은 불편한 자세를 연습을 하며 장시간 유지해야 한다. 장르별 신체활동의 특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현대 예술에서 더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러한 질환은 더 심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연예술인들의 질환이 단순히 업무 특성으로만 생긴 것이라 치부하기 어렵다. 이들이 연습하고 공연하는 환경과 공연업계에서 당연시되어 오는 문화의 문제도 이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

공연예술 분야를 중심으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연예술인들은 부적절한 실내공기 상태나 온도, 어두운 조명, 높은 강도의 소리·빛, 청결하지 않은 공간 등이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업무상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문화적 요인’이었다. 무리한 연습·공연·작업 일정, 과도한 업무량 등이 이들의 질병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연 예술인들은 과도한 업무와 무리한 일정으로 신체에 무리가 가더라도 빠지거나 쉬는 것이 불가능하다. 당장 잡혀있는 공연 일정이 매우 촉박하고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거나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상을 당했더라도 일단은 참고 닦친 공연부터 올라가야 하며, 위험하더라도 더 좋은 무대를 위해 설치 작업을 해야 한다.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잡혀있는 공연 일정은 일단 소화해야 하고, 만약 아파서 쉬려고 한다면 캐스팅에서 밀리는 것은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연예술인들에게 가혹한 환경은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로 미덕화되고 있다. 이들의 희생이 공연을 향한 열정으로 미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의 결과로 부상이 악화되어 일찍 은퇴를 하거나 다시는 무대에 설 수 없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참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참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공연예술인들의 상당수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나 질병을 겪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대부분의 공연예술인들의 질병 치료를 자비 부담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비용 부담 때문에 충분한 치료나 재활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부상으로 인한 예술 활동 중단은 수입의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예술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가 되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 바뀌어야 할 문화, 비용 및 교육 지원의 강화

최근 공연 전에 안전교육이 의무화되고 예술인의 직업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공연예술인들이 겪는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업계에 관심은 저조한 편이다. 집단 작업이 대부분이고 상하관계가 엄격한 공연예술 분야의 특성상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쇼를 위한 희생을 요구할 경우 하급자는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공연예술인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직업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연계의 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 공연을 잘 올리고 훌륭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종사자들의 과도한 희생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연예술계의 상급자를 중심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충분한 치료 기간을 보상해주는 문화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비용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모든 것들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노후 시설 교체 등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고, 잦은 부상에 노출되는 공연예술인들이 정기적으로 몸 상태를 점검하고 예방 및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 또한 필요하다. 또한 좀 더 내실 있는 교육도 요구된다. 현재 진행되는 동영상 안전교육은 너무 일반적인 주의사항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장르 또는 직무에 따라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요구된다. 특히 안전교육은 공연예술의 각 분야 전문성과 매우 깊이 관계하는데, 각 세부 전문 분야의 기술 활용과 관계한 안전 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 본 원고의 내용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정책과제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 공연예술 분야를 중심으로」에서 발췌함

참고자료

차민경(2022),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공연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민경(2022).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 공연예술인과 바뀌어야 할 문화 및 지원”.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아키스브리핑 제315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차민경 cremk@kcti.re.kr
ACKIS브리핑 작성 2022.12.29.

#공연예술인 #예술인 #산업재해 #예술인지원 #재활 #치료
#안전교육